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621호 1판 (음력 9월 22일)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내년 지방선거 '줄세우기 공천' 사라진다

민주 지역구 의원 1명뿐, 국민의당은 입후보자 비교적 잠잠
선거 7개월 앞…일부 입후보자들 합종연횡 공천셈법 복잡

매번 지방선거 때면 불거지곤 했던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들의 '줄세우기 공천'이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광주·전남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 1명 밖에 없는 만큼 사실상 국회의원의 줄세우기 공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의당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민주당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반면, 벌써부터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 간 '합종연횡' 움직임이 감지되고, 벌써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관련기사 3·7면〉

9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과거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주도의 '국회의원-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치 라인'이 사라지는 모양새다.

지방선거 때만 되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교통 정리'를 하면서 경선 과정에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위원장들이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원외위원장들이어서 '줄세우기 공천'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위원장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후보를 집중 지원할 경우 차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는 눈치다.

민주당의 경우, 눈치를 볼 현역 국회의원이 없다는 점 때문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간 눈치싸움과 합종연횡이 치열해지면서 공천 셈법도 더욱 복잡하고 당내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선거에서 막무가내식 출마를 막기 위해 '경선에 참여한 뒤 급을 낮춰 다시 본선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런 가운데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한 입후보 예정자간 손을 잡으려는 합종연횡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최근 한 구청장 후보가 당원 모집을 굉장히 많이 해서 몇몇 시장 후보군이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는 등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 확보 경쟁이 불붙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 정치인 줄세우기'가 없을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 논리보다는 지역을 위해 일 할 사람을 뽑자'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한 자리수 지지율 탓에 아직 당내 경선 등 치열한 경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시장 후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달리 아직까지는 조용한 분위기다. 지역구 내 경쟁력있는 후보 군 가운데 누가 손을 선뜻 들고 나서지 않아 현역 국회의원들도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의 경우 박지원 의원 등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이 전남 곳곳을 돌며 사실상 선거전에 들어가면서 일부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빨주노초…진도 남망산의 '4색 가을' 가을빛이 완연한 9일, 진도 접도 남망산 웰빙등산로 주변 수목들이 붉게 물들어 깊어가는 가을을 연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내년 호남 SOC 예산 1조6000억 증액"

국민의당·전남도 예산정책협
완도~광주 고속도 예산 지원
한전공대 입지 조속 결정 주문

국회의 예산 심사철을 맞아 국민의당과 전남도가 9일 지역발전 관련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안철수 당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박지원 전 대표, 정인화 도당위원장, 황주홍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주승용·윤영일·김경진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우기종 정무부지사, 문금주 전남도 기획조정실장과 실국장들이 주요사업 내용과 소요예산을 설명하고 건의하면, 의원들이 사업별 예산확보 방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내년도 전남도 현안사업 국고지원 건의 목록의 첫 번째에 오른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계속) 사업의 경우 2023년 완공을 위해선 내년도에 3000억원이 반영돼야 하는데,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예산 삭감에 따라 단 455억원만 잡혀있다며 전액 반영을 건의하면, "기재부보다 국토부 설득이 먼저다", "우리 방(의원실)에서 정부 관계자랑 전남도 3자가 만나 협의를 하자"는 구체적 방안이 의원들에게서 제시됐다.

지역 이슈의 중심에 선 한전공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선, "지역에서 요구하는 대학면적이 50만평에 이르는데 이는 전남대 부지 20만평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면적을 고집할 게 아니라 다소 줄이고 부지 문제를 전남도와 광주시가 협의해 조속히 확정짓는 게 선결과제"라는 조언도 나왔다.

섬과 바다를 관광자원을 내세운 전남이 아심 차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환경운동가들의 반발에 부딪힌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 참석 의원들은 "파악해보니 주민들 반대가 심상치 않더라. 반대 주민들을 설득해온다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리당 의원에게 부탁해 환경부를 설득해보겠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안 대표는 "제가 전남 SOC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니까 일부에서는 지역감정 운운하며 저를 공격했다. 그렇지만 전남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지역균형발전이 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상식이다. 전남에 투자하는 게 곧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지난 9월 제가 전남을 방문했을 때 도민께 약속드린 바대로 반드시 전남발전 예산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우 정무부지사는 특히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및 복지 확대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자 "지난 수십년간 영남 중심으로 국토가 발전하다 보니, 영남은 저만치 뛰어가고 전남은 이제 겨우 걸어가는 정도"라며 "SOC예산 삭감이 이뤄지더라도, 전남을 영남과 수도권과 동일선상에 두는 식이라면 전남은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절박감을 나타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황주홍·김경진·정인화·윤영일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호남 SOC 예산 1조6000억원 증액을 골자로 하는 국토교통 분야 예산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이들은 "1조6000억원 증액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예결특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호남권에 대한 오랜 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해 SOC 투자 증액이 절실하며, 정부·여당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국·아세안 관계 美中日 수준으로"

文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저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신(新)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상품교역 중심이었던 관계에서 기술·문화예술·인적교류로 확대하겠다"며 "교통·에너지·수자원 관리·스마트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 한-인니 중소기업공동위원회 등 양국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협의체들을 발전적으로 재편하겠다"며 "양국 경제부처 간 장·차관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협력 추진사항을 정기 점검하고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5·18암매장 흔적 발견 못해 ▶6면
新팔도유람-경남 억새 군락지 ▶18면
내달 결혼하는 KIA 나지완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The Completion of SUV Line up
G-Class, GLS, GLE, GLE Coupé, GLC, GLC Coupé, GLA
메르세데스벤츠 SUV 라인업의 완성.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와 함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Tel.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LA 45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640kg, 자동7단), 복합연비: 9.1km/ℓ(도심연비:8.3km/ℓ,고속도로연비: 10.4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192g/km · GLC 220d 4MATIC (배기량: 2,143cc, 공차중량: 1,958kg, 자동9단), 복합연비: 12.9km/ℓ(도심연비:11.6km/ℓ,고속도로연비: 15.1km/ℓ), 등급:3등급, 복합CO2배출량: 148g/km · GLC 250d 4MATIC (배기량: 2,143cc, 공차중량: 1,9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2.7km/ℓ(도심연비:11.4km/ℓ,고속도로연비: 14.7km/ℓ), 등급:3등급, 복합CO2배출량: 151g/km · Mercedes-AMG GLC 43 4MATIC (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1,995kg, 자동9단), 복합연비: 8.1km/ℓ(도심연비:7.5km/ℓ,고속도로연비: 9.0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217g/km · GLE 250d 4MATIC (배기량: 2,143cc, 공차중량: 2,280kg, 자동9단), 복합연비: 11.1km/ℓ(도심연비:10.4km/ℓ,고속도로연비: 12.2km/ℓ), 등급:4등급, 복합CO2배출량: 173g/km · GLE 350d 4MATIC (배기량: 2,987cc, 공차중량: 2,350kg, 자동9단), 복합연비: 9.7km/ℓ(도심연비:9.0km/ℓ,고속도로연비: 10.8km/ℓ), 등급:4등급, 복합CO2배출량: 200g/km · Mercedes-AMG GLE 63 4MATIC (배기량: 5,461cc, 공차중량: 2,520kg, 자동9단), 복합연비: 5.8km/ℓ(도심연비:5.2km/ℓ,고속도로연비: 6.8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306g/km · GLE 350d 4MATIC Coupé (배기량: 2,987cc, 공차중량: 2,405kg, 자동9단), 복합연비: 10.1km/ℓ(도심연비:9.2km/ℓ,고속도로연비: 11.3km/ℓ), 등급:4등급, 복합CO2배출량: 193g/km · Mercedes-AMG GLE 63 4MATIC Coupé (배기량: 5,461cc, 공차중량: 2,465kg, 자동9단), 복합연비: 6.2km/ℓ(도심연비:5.4km/ℓ,고속도로연비: 7.5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289g/km · G 350d (배기량: 2987cc, 공차중량: 2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7.7km/ℓ(도심연비:7.2km/ℓ,고속도로연비: 8.3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259g/km · Mercedes-AMG G 63 (배기량: 5461cc, 공차중량: 2635kg, 자동7단), 복합연비: 5.2km/ℓ(도심연비:4.8km/ℓ,고속도로연비: 5.8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342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